

# 玉峯의 詩世界

천 부 성 \*

<目次>

I. 序論	III. 玉峯詩의 特徵
II. 玉峯의 시세계	IV. 結論

<국문 초록>

본 논고는 16世紀 韓國 漢詩史上 宋詩風이 주류를 형성하던 詩風이 唐詩風으로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그 중심에 있던 三唐詩人 중 湖南 제일의 시인으로 꼽히며 五言絶句의 風格이 千年 속에 가장 위대하다고 定評이 나 있는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를 다루고자 하였다.

이에 서론에서는 三唐詩人의 정의와 玉峯 白光勳의 詩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내용을 제시하고 본 논고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玉峯의 시세계에서는 作品의 概觀 및 內容別 作品을 통하여 玉峯의 시세계를 分析하였다. 作品의 內容에서는 客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孤獨의 情恨, 그리고 역사적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연상하면서 느끼는 감회를 읊은 無常의 懷古, 산수를 벗하며 자연에 심취 또는 계절의 정취를 읊은 自然의 景物, 마지막으로 世俗을 떠나 山寺에서 짓거나 여러 승려들과 주고받으며 느낀 것을 표현한 交遊의 脫俗으로 분류하여 作品을 분석해 보았다.

玉峯詩의 特徵에서는 修辭의 측면과 內容의 측면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

\* 충북여자고등학교 교사 / wan97@hanmail.net

다. 修辭의 特徵에서는 經史 및 故人古事·名人名句에서 詩意와 詩語를 통하여 표현하는 用事性, 자연의 뛰어난 景物을 통해 얻은 시인의 정감을 눈앞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듯 묘사하는 繪畫性, 觀念化한 사물을 詩를 통하여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나타내는 象徴性으로 분류해 고찰하였다. 또한 內容的 特徵에서는 清新한 內容과 古淡한 內容으로 분류해 고찰하였다.

이상과 같이 玉峯의 詩는 기존의 詩가 까다로운 修辭와 난해한 典故를 사용하며, 文學을 과시 혹은 心性修養의 도구로 생각하던 主理的 性향에서 탈피하여 聲律의 생동감 및 자연스러움이 넘치는 언어로 표현하는 主情的 性향의 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玉峯詩가 관념적이지 않고 개인의 情緒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生活的 情感을 詩化하여 文學의 獨自性을 확립한 점과, 唐詩의 詩法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풍토에 맞는 개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自主性은 특히 玉峯詩를 韓國 漢詩史의 측면에서 조명해 볼 때, 그 位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주제어】 玉峯, 三唐詩人, 唐詩風, 主情的

## I. 序論

麗末鮮初의 詩風은 蘇東坡를 위시한 宋詩風이 주류를 형성하였는데, 成宗 연간부터는 宋詩風 중에서도 특히 江西詩風이 일시를 풍미하여 海東江西詩派로 일컬어지는 李荇(1498-1534)과 朴闇(1479-1504) 같은 詩人이 나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16世紀는 韓國 漢詩史上 詩風의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여 開國初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진 唐詩風이 文學의 穆陵盛世期에 접어들어 비로소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芝峯 李晬光(1563-1628)은

本朝의 시인은 宋·元을 본받음을 벗어난 자가 거의 없다. 李胄·兪好仁·申

從漢·申光漢 같은 사람은 唐詩에 근사하다 불리어졌지만 심오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것 같다. 朴淳·崔慶昌·白光勳·李純仁·李達은 모두 唐詩를 배워, 그 시를 지은 것이 가히 稱誦할만 한 것이 있다.<sup>1)</sup>

라고 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學唐의 중심에는 三唐詩人이 있었음을 가히 상고해 볼 수 있다.

이러한 三唐詩人은 孤竹 崔慶昌(1539-1583)·玉峯 白光勳(1537-1582)·蓀谷 李達(?-?)을 말한다. 三唐詩人으로 통칭한 첫 기록인 任相元(1638-1697)의 「蓀谷集序」를 살펴보면,

穆陵朝에 이르러 『三唐集』이라 불리는 것이 있었는데, 孤竹 崔慶昌·玉峯 白光勳·蓀谷 李達을 이른다. 이 세 사람은 힘써 唐詩를 모의하여 간혹 아주 비슷한 것이 있다.<sup>2)</sup>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 三唐詩人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현하여 唐詩風에 힘썼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許筠(1569-1618)의 『鶴山樵談』에서

崔慶昌은 맑고 굳세며, 白光勳은 담박하여 모두 가히 귀중하지만, 그러나 기력이 미치지 못하여 조금 사실의 후의를 잃은 듯하다. 李達은 넉넉하고도 아름답다.<sup>3)</sup>

라고 평하였듯이 三唐詩人은 제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詩風을 형성하였다.

- 
- 1) 李睟光, 『芝峰類說』, “本朝詩人 不脫宋元習者無幾 如李胄·兪好仁·申從漢·申光漢號近唐 而似無深造之功 朴淳·崔慶昌·白光勳·李純仁·李達皆學唐其所爲詩有可稱誦者.”
  - 2) 任相元, 「蓀谷集序」, “當穆陵朝 有稱三唐集者 謂崔孤竹慶昌·白玉峯光勳·李蓀谷達也 是三子者 刻意摹唐 間有絕相肖者.”
  - 3) 許筠, 『鶴山樵談』, “崔之清勁 白之枯淡 皆可貴重 然氣力不逮 稍失事厚 李則富艷.”

본고에서는 三唐詩人 중 가장 먼저 詩集을 출간하였으며, 작품 수도 월등이 많고<sup>4)</sup>, 湖南 제일의 시인으로 꼽히며, 五言絶句의 風格이 千年 속에 가장 위대하다고 定評이 나 있는<sup>5)</sup>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를 다루고자 한다.

지금까지 玉峯 白光勳의 詩에 대한 연구자들의 연구방향과 내용은 情恨·懷古·隱逸·脫俗·景物·交遊詩 등으로 구분하는 主題論的 접근이나, 清新·古淡 등 風格的 접근으로 이루어졌다.<sup>6)</sup> 이 논문에서는 먼저 作品 概觀을 통하여 作品의 形式的 分類와 內容의 分類를 하고, 詩世界에서 作品의 內容을 각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멀리 떨어진

4) 白光勳의 『玉峯集』은 1609년에 간행되어 514首, 崔慶昌의 『孤竹集』은 1683년에 간행되어 234首, 李達의 『蓀谷集』은 1693년에 간행되어 365首의 詩가 수록되어 있다.

5) 黃玹, 『梅泉集』, “一代湖南白玉峯 郎潛十載歎龍鍾 光無故實居然勝 五絶千秋一大宗.”

6) 권순열, 「옥봉 백광훈 연구」,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김영국, 「白玉峯의 五言絶句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1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白玉峯의 七言絶句에 대하여 - 素材 ‘夕陽’을 中心으로」, 『인문과학연구』 제12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白光勳 詩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玉峯 白光勳의 詩 研究」, 원광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93.; 김종서, 「玉峯 白光勳 詩 研究」, 연세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4.; 「玉峯 白光勳 詩의 風格」, 『한국한시연구』 제3집, 태학사, 1995.; 「玉峯 白光勳과 湖南詩壇의 交遊」, 『한국한시연구』 제10호, 태학사, 2002.; 박종훈,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 研究 - ‘清’과 ‘淡’의 特質을 中心으로」, 한양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9.; 안병학, 「白光勳 詩 小考」, 『어문학총』 제27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학교원 박사학위논문, 1988.; 유현숙, 「玉峯 白光勳論」, 『석당논집』 제19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3.; 이재복, 「옥봉 백광훈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7집, 세종대학교 세종어문학회, 1994.; 임채용, 「白光勳의 作品世界」, 『중국어논총』 제6집, 고려대학교 중국어문학회, 1993.; 정병홍·임채용, 「三唐詩人 白光勳의 漢詩」, 『순천대학교논문집』 제10집, 순천대학교, 1991.; 차경화, 「玉峯 白光勳의 交遊詩 研究」, 동아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94.; 최낙원, 「玉峯 白光勳의 漢詩 研究」, 단국대학교원 석사학위논문, 1986.; 「玉峯 白光勳의 情懷詩 研究」, 『한문학논집』 제6집, 단국한문학회, 1988.

벗을 두고 그리운 심정을 표현한 것,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孤獨의 情恨과 역사적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연상하면서 느끼는 감회를 읊은 無常의 懷古의 詩가 있다. 그리고 中國 明末清初代의 詩論家인 王夫之가

情·景은 이름이 두개이나 실체는 떨어질 수 없다. 詩의 신묘한 것은 妙合의 경계가 없어 뻐어난 것은 情 가운데 景이 있고, 景 가운데 情이 있다. (中略) 情과 景이 비록 한 가지는 마음에 있고, 한 가지는 사물에 있는 나뉘어 있으나, 景은 情에서 생겨나고, 情은 景에서 생겨나는 것이다.)<sup>7)</sup>

라고 했듯이 王夫之의 情景 交融論을 바탕으로 자연 속의 대상에서 事物의 自我를 발견하려고 한 自然의 景物과 혼란한 세상의 벼슬 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불안함 및 여러 승려들과 시를 주고받으면서 느끼는 交遊의 脫俗으로 細分하여 고찰하기로 하겠다.

이어서 玉峯詩의 特徵에서는 修辭的 特徵과 內容的 特徵을 탐색하여 玉峯詩의 중요한 특징에 접근해 가기로 하겠다.

## II. 玉峯의 시세계

### 1. 作品 概觀

玉峯의 詩文學 世界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해 먼저 形式的인 分類와 內容的 分類를 하기로 하겠다.

그의 作品集은 『玉峯集』과 후에 다시 刊行하면서 追編한 『玉峯別集』 한 권이 있다. 『玉峯集』은 上·中·下 3冊으로 詩集 3卷이 形式別로 나뉘어 편집되어 있다. 『玉峯集』 上卷의 첫머리에는 西垞 柳根(1549-1627)

7) 王夫之, 『薑齋詩話』, “情景名爲二 而實不可離 神於詩者 妙合無垠 巧者則有情中景 景中情……情景雖有在心在物之分 而景生情 情生景.”

과 月沙 李廷龜·象村 申欽(1566-1628)의 序가 차례로 실려 있고, 五言絶句 98題 118首와 七言絶句 194題 222首가 수록되어 있다. 이들 수록된 작품들 중에는 行思스님의 「訪玉峯幽居」, 石川 林億齡의 「題二友堂」, 岐峯 白光弘의 「題魏上舍衰宅」 3首가 함께 수록되어 있다.

中卷에는 五言律詩 70題 76首와 七言律詩 35題 38首가 수록되어 있으며, 下卷에는 五言古詩 15首와 七言古詩 14首가 수록되어 있다. 이것이 本集이고, 補遺에 15首의 작품을 追録하였고 끝에 橘屋 尹光啓(1559-1619)가 쓴 「玉峯集後序」가 있다.

그 뒤에 『玉峯集』을 다시 간행하면서 『玉峯別集』 한 권을 追編하였는데 여기에는 五言絶句 14題 15首와 五言律詩 4題 5首가 있고, 그 중에 牛溪 成渾(1535-1598)의 詩를 次韻한 詩 1首가 포함되어 있으며, 七言絶句 1首, 五言古詩 1首와 古詩 1首가 詩篇에 수록되어 있다. 또 『玉峯別集』에는 28篇의 書와 附錄에 輓詞 11篇, 祭文 4篇, 盧守愼의 「贈玉峯」 2首와 月溪 趙希文(1527-1578)의 「寄玉峯」 1首, 五峯 李好閔(1533-1634)이 玉峯을 칭송하며 쓴 帖文 2篇, 蘭雪軒 許楚姬(1563-1589)가 玉峯의 詩를 批評한 詩 1首, 후대의 隱峯 安邦俊(1573-1654)이 玉峯의 손자에게 보내는 「與白進士尙賢書」 1篇, 芝村 李喜朝(1655-1724)가 修正한 年譜와 丈巖 鄭澹(1648-1736)가 撰한 墓碣銘과 1723년에 쓴 「書家庭手牘後」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의 玉峯詩의 概觀을 통하여 五言絶句·七言絶句가 대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가 있으니 意趣와 聲律면에서 가장 많은 기교를 요하는 것이 絶句임을 보면 이러한 사실에서 그의 詩才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된다.

다음은 詩를 內容別로 분류해 보면,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나 멀리 떨어진 벗을 두고 그리운 심정을 표현한 것,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孤獨의 情恨을 노래한 詩는 가장 많은 분량인 약 215餘首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역사적 현장에서 역사적 사실을 연상하면서 느끼는 감회를 읊은 無常의 懷古를 述懷한 作品에는 약 20餘首가 수록

되어 있다. 산수를 벗하며 자연에 심취 또는 계절의 정취를 읊은 自然의 景物 詩가 약 180餘 首가 수록되어 있다. 世俗을 떠나 山寺에서 짓거나 世俗에서 山寺를 동경하며 쓴 詩, 또 여러 승려들과 주고받으며 느낀 것을 표현한 交遊의 脫俗을 느낄 수 있는 作品에는 약 90餘 首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는 玉峯의 詩世界를 內容別로 作品을 통하여 分析하기로 하겠다.

## 2. 作品의 內容

本 節에서는 玉峯의 詩世界를 孤獨의 情恨·無常의 懷古·自然의 景物·交遊의 脫俗으로 나누어 『玉峯集』에 나와 있는 作品 순서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孤獨의 情恨이다.

### 1) 孤獨의 情恨

“會者定離 去者必返”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태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玉峯의 孤獨의 情恨을 소재로 한 作品들은 고향을 떠나면서 느끼는 애환이나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특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述懷하거나,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 또는 멀리 떨어져 있는 벗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먼저 「寄友」를 보면,

江水東流去	강물은 동쪽으로 흘러가고
東流無歇時	동쪽으로 흘러 쉬이 없구나.
綿綿憶君思	끊임없이 그리운 그대 생각도
日夜海西涯	밤낮으로 서쪽 끝까지 이른다. <sup>8)</sup>

8) 白光勳, 『玉峯集』 上卷, 「寄友」.

이 作品은 친구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쉽 없이 흘러가는 강물에 비유하여 표현한 詩이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자연물인 景物에 비유하여 표현하였고, 轉句와 結句에서는 시인의 벗에 대한 그리운 정감을 표현하였으니, 前景後情의 구성을 잘 이루고 있다. 강물이 쉽 없이 흐르는 것과 같이 벗에 대한 그리움은 끊임이 없다는 점에서는 景物과 自我가 일체를 이루는데, 강물의 흐름은 흘러 어디엔가로 가고 나는 그대에게 가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야만 하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마음의 對照性을 표현 하였다.

東流가 닿는 곳은 동쪽 끝이고 시인은 밤낮으로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海西 끝에 이른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리운 친구가 있는 ‘東’과 자신이 머물고 있는 ‘西’의 극단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적인 거리감에 의해 다시 만나기 어려움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그리하여 그리움의 농도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은 「別家」이다.

浮生自苦百年間	덧없는 인생 한 평생 스스로 견뎌야 하니
說與妻兒各好顏	처자를 달래여 각각 좋은 얼굴을 하였다.
却到金陵城下望	문득 금릉성 아래에 이르러 뒤를 돌아보니
白雲猶在九峯山	흰 구름은 오히려 구봉산에 걸려 있네. <sup>9)</sup>

이 作品은 과거 준비를 위해 아내와 자식을 고향에 두고 헤어지며 쓴 詩이다. 玉峯은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뒤로 한 채 宦路에 나서게 되는데, 顯達을 목적으로 하는 宦路가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이별의 슬픔은 곱절이 된다.

起句에서는 자신의 덧없는 인생을 한탄함으로써 애뜻한 이별을 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承句에서는 행복했던 순간을 뒤로한 채 이별을 해야 해서 섭섭하지만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별을 받아들여야 하고

9) 白光勳, 『玉峯集』 上卷, 「別家」.

평정심을 잃지 않기 위해 가족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轉句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금릉성에 도착하여 떨어진 고향 땅을 돌아보며, 가족들을 생각하는 玉峯의 애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으며, 結句에서는 엽매임 없이 흐르는 구름과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대비시켜 슬픔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살펴 본 作品에 나타나 있듯이 玉峯 詩의 주류를 이루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그리움과 孤獨의 情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그리움과 고독은 玉峯에게 있어 운명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이기에 더욱 애통하고 절실하기만 하다. 그리움과 고독을 작품 속에서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玉峯은 감정을 억제하고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고도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승화시켰음을 고찰해 보았다.

다음은 無常의 懷古를 주제로 하는 作品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無常의 懷古

흐르는 세월 속에서 人生의 富貴榮華와 王朝의 興亡盛衰는 모두 덧없기만 한 것으로 시인이 보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만은 아지만, 체험하지 않은 세계를 역사적 현장을 통하여 그려내고 있다.

玉峯은 화려했던 절터나, 한 시대를 번영했던 王朝의 懷古를 통하여 그 無常함을 토로하고 있다. 먼저 「明皇」을 살펴보면,

西蜀風霜兩鬢絲	서촉 땅 피난 세월 귀밑털은 희어지고
歸來興慶更羈危	홍경궁에 돌아와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이네.
可憐南內遷移苦	가련하다 남내에 옮겨와 겪는 괴로움이여
莫道當時有祿兒	당시에 안록산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라. <sup>10)</sup>

이 作品은 楊貴妃와 사랑을 나누다 安祿山의 亂이 일어나자 황제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西蜀으로 달아나야 했던 비운의 주인공 唐나

10) 白光勳, 『玉峯集』 上卷, 「明皇」.

라 玄宗을 詩材로 읊은 詩이다.

起句에서는 ‘開元之治’라고 불릴 정도로 治世를 잘 했던 玄宗이 楊貴妃를 만나 방탕한 생활에 빠지면서 安祿山の 亂을 초래하고 결국 西蜀으로 피난길을 떠나 어려움을 겪고 楊貴妃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귀밑 털까지 희어버린 玄宗의 모습을 묘사하였다. 承句는 還都하여 皇帝의 자리를 아들 肅宗에게 물려주고 太上王으로 물러나 長安의 동쪽 끝에 있던 별궁 興慶宮으로 거처를 옮겼지만 수난의 세월은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南內로 옮겨와 겪는 괴로움이 가련하기도 하나 당시에 安祿山이 난리를 일으켰기 때문에 고생한 것이라고 말조차 하지 말라고 하여 괴로운 심사를 타내었다.

玄宗처럼 영특한 사람도 女色에 빠져 백성들을 塗炭에 빠지게 했고, 자신도 처량한 만년을 보내게 되었으니 人君은 善惡의 岐路에서 잘 판단하여야 함을 懷古하고 있다. 다음은 「松都懷古」이다.

向來歌舞但荒臺	예전에 노래하고 춤추던 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고
野塵年年占綠苔	먼지는 해마다 푸른 이끼를 덮어가네.
西近廢庵惟有路	서쪽 낡은 암자 부근에는 외딴 길이 있는데
曾聞宮女點燈來	일찍이 궁녀들이 등불 켜고 오갔던 곳이라네. <sup>11)</sup>

이 作品도 松都를 懷古한 詩로 起句의 荒臺와 轉句의 廢庵은 허전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나타내며 野塵·占綠苔의 詩語에서 시간적 거리를 실감케 한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榮에서 枯로, 盛에서 衰로의 변화에 따른 無常感을 나타내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궁녀들이 등불을 켜고 오고 갔던 길이 한적하게 변해있어 無常함을 증가시키고 있다.

위의 松都邑地에서 懷古한 詩의 감정의 주류는 無常感이다. 그러나

11) 白光勳, 『玉峯集』 上卷, 「松都懷古」.

그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정의 절제를 통하여 情을 景에 실어 나타내는 등의 詩的 修辭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으로 無常의 懷古를 나타낸 玉峯詩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작품의 주된 것은 有常과 無常의 대비를 통하였지만, 이러한 감정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감정의 절제를 통하여 情을 景에 실어 나타내는 등의 시적 형상화의 과정을 거쳐 한 차원 높은 詩的 表출을 고찰할 수 있었다.

다음은 自然의 景物을 노래한 作品을 살펴보기로 한다.

### 3) 自然의 景物

자연은 시인에게 있어서 무궁무진한 소재를 제공해 주는 작품의 대상이다. 자연을 소재로 시를 읊을 때에는 단순히 자연 그대로의 풍경을 묘사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키고, 그것을 통해 景物을 詩로 탄생시키니 玉峯도 많은 작품에서 자연을 소재로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고 음미하며 읊조렸다. 먼저 「秋齋夜吟」를 살펴보면,

獨起小齋空    홀로 깨니 작은 서재 텅 비어 있고  
 月明霜氣中    서리 기운 찬 가운데 달빛만 밝네.  
 幽禽栖不定    조용히 깃든 새 편치 않음은  
 秋樹政多風    가을 나무에 정히 바람이 많아서네.<sup>12)</sup>

이 作品은 가을 밤 서재에서 고향생각으로 잠 못 드는 심사를 노래한 詩이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가을날 밤 텅 빈 작은 서재에서 잠을 자다 문득 깨어보니 달빛과 차가운 서리로 가득 채워져 있다. 獨·空·明月·霜氣에서 시인의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轉句와 結句는 도치된 詩句이다. 轉句에서는 景物에 시인의 내적 심사를 투영하였는데, 한밤중 잠에서 깨어난 玉峯은 무언가 心身이 편치 않고 있는데, 그러한 심정으로 以心傳心인듯 새둥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12) 白光勳, 『玉峯集』 上卷, 「秋齋夜吟」.

있음을 보며 자신의 처지처럼 편치 못한 새둥지 안의 새를 그려냈으니, 玉峯의 섬세한 심성이 잘 드러나 있다. 다음은 「東溪次竹谷韻」이다.

春山暖望如烟	봄 산 아련히 바라보니 안개 낀 듯 하고
松韻冷冷和石泉	솔바람 시원하게 돌샘 물소리 속에 나네.
細酌芳樽酬好節	꽃다운 술 조금씩 나누어 마시기 좋은 때에
夕陽花下倚酣眠	석양녘 꽃 아래 술기운에 즐고 있네. <sup>13)</sup>

이 作品은 아지랑이 피는 봄날의 興趣를 읊은 詩로 起句에서는 봄 산을 바라보고 있자니 안개 같은 것이 부영고 푸르스름하게 봄 산을 감싸 안고 있다. 承句에서는 귀 기울여 보니 솔바람 소리가 맑게 울려 흘러가는 돌샘의 소리와 한데 어우러지고 있다.

轉句에서는 이렇게 술 마시기 좋은 시절에 술잔에 술 가득 채워 놓고 자연과 하나가 되어 덧없이 술 마시기 좋은 때임을 말하고 있다. 結句는 날이 저물 무렵이 되어 술기운이 무르익으니 꽃그늘 아래 나도 모르게 졸음에 살며시 빠져드는 자연과의 合一의 경지를 묘사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 쓰여진 수사법은 다양한데, 봄 산에 낀 아지랑이의 모습과 석양의 모습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서늘하게 불어오는 솔바람에서 촉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다. 또 돌 틈을 흘러 내려가는 소리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고, 꽃향기에서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였으며, 맛 좋은 술을 마시니 미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봄날의 興趣를 물씬 느끼게 해주고 있다.

이렇게 玉峯의 自然의 景物을 고찰하여 보니 단순히 자연에 대한 사랑만을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仙境에 대한 동경, 현실 삶의 질곡에 대한 거부와 감정을 고상한 속성의 사물에 依託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梅·竹 등 君子로 觀念化한 사물에서 同一性을 지닌 이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불안정성을 투사시켜 자신의 삶을 재생시켜

13) 白光勳, 『玉峯集』上卷, 「東溪次竹谷韻」.

詩를 통해 형상화하였음이 玉峯詩의 詩世界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다.

다음은 交遊의 脫俗을 作品 속에서 보기로 한다.

#### 4) 交遊의 脫俗

玉峯의 詩에는 山寺를 배경으로 하거나 승려와 교류한 작품이 많다. 寶林寺·頭輪寺 등 여러 사찰을 배경으로 한 詩, 太尙上人·思峻上人 등의 여러 승려와 주고받은 詩的 交遊를 통하여 脫俗을 希求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玉峯의 唐나라 詩風을 흡모하여 佛敎·道敎의 분위기가 詩 作品 곳곳에 깔려 있으니, 그가 추구한 세계는 속세의 번뇌에서 벗어나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山寺를 가까이 했을 것이다. 먼저 「過寶林寺」을 살펴보면,

落葉鳴沙逕	낙엽은 모랫길에서 뒹굴고
寒流走亂山	찬 시냇물 못 산들을 지나네.
獨行愁日暮	홀로 가다 해 저물어 근심스런데
僧磬白雲間	흰 구름 사이로 경쇠소리 들리네. <sup>14)</sup>

이 作品은 寶林寺를 찾아가며 쓴 詩로 이 시의 배경인 寶林寺는 어지러운 世俗과 脫俗의 연결고리이며 知己와 스님들과의 交遊場所이다.

起句와 承句는 가을날 해질녘의 쓸쓸한 분위기를 묘사하여 지난여름 뻑뻑이 우거졌던 숲 속에서는 낙엽이 떨어져 모랫길에서 뒹굴고 있고, 찬물은 여기저기 흘러진 못 산봉우리 사이를 급히 흐른다고 하였다. 轉句에서는 날이 저물어 가는 산 속의 길을 혼자서 걸으며 산사에 이르기 전에 더 어두워질까 염려하는 마음을 承句에서 ‘起’字를 통하여 빨리 흐르는 물에 의탁하여 표현했다. 이 모든 상황은 삶의 불안정성 속에 살아가는 작자의 의식의 표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結句에서는 흰 구름 사이

14) 白光勳, 『玉峯集』 上卷, 「過寶林寺」.

로 들려오는 풍경소리에서 위안의 공간이 멀지 않았음을 알게 해준다. 즉 흰 구름 사이에서는 作者의 온갖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것이니 이로 인하여 玉峯은 脫俗을 염원하고 超越의 세계를 希求하고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은 「贈白蓮社印思上人」이다.

日出碧簷影	해 뜨자 푸른 처마 그림자 지고
漫空五色霞	하늘 가득 오색 노을이 감도네.
高僧掃庭宇	고승은 절 마당을 쓸고는
閑坐讀蓮華	한가로이 앉아 연화경을 읽네. <sup>15)</sup>

이 作品은 白蓮社에서 읊은 시로 고승의 정신세계를 시인 자신이 동일시되기를 지향하고 있는 詩로 보인다.

해가 뜨자 처마 그림자는 푸르고 하늘엔 오색 노을이 가득하니 ‘碧’字는 엄숙하고 정결한 느낌을 주고, 하늘을 가득 채운 오색 노을은 신비한 분위기마저 연출한다. 이것으로 『蓮華經』을 읽고 있는 스님의 정신적 경지를 나타낸 것이라 짐작 할 수 있다. 轉句에서는 高僧이 마당을 쓸고 있고, 마당을 쓰는 행위는 일상적인 행위이면서, 마음의 잡되고 헛된 욕망을 쓸어버리고 無所有의 마음 상태에 이르는 수련의 행위인 것이다.

이렇게 마당을 쓸고 나서 한가로이 앉아 『蓮華經』을 읽는다고 하였으니, 『蓮華經』은 『法華經』이라고도 부르는데 부처는 언제나 이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衆生을 教化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成佛케 한다는 지극한 이상이 담겨져 있다. 마당을 쓸고 책을 읽고 늘 하는 일상적인 삶을 통해 진실한 道의 경지가 일상성에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玉峯의 交遊의 脫俗을 고찰하여 보니, 自然과 山寺는 知己와 스님들과의 交遊의 場인 동시에 脫俗을 통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속에서 玉峯詩에 佛教·道教的 분위기가 詩 곳곳에 깔려 있는 것은 玉峯詩가 唐詩의 영향을 받았음

15) 白光勳, 『玉峯集』 上卷, 「贈白蓮社印思上人」.

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詩世界를 孤獨의 情恨·無常의 懷古·自然의 景物·交遊의 脫俗으로 나누어 作品들을 살펴보았다. 삶 속에서 느껴지는 그리움과 고독을 담담하게 詩로 형상화하였으며, 과거 역사를 통하여 有常과 無常을 대비하였고, 溫故知新하려는 삶의 자세를 살펴 볼 수 있었다. 또한 자연에 대한 사랑과 관념화한 사물의 이미지를 통하여 자신의 이상적 삶과 동일시하였으며, 스님들과 산사를 배경으로 詩를 주고받으며 마음의 안정과 脫俗을 希求하였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다음 玉峯詩의 特徵에서는 修辭的 特徵과 內容的 特徵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Ⅲ. 玉峯詩의 特徵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고찰한 玉峯詩의 內容을 바탕으로 하여 玉峯詩의 特徵을 修辭的 特徵과 內容的 特徵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修辭的 特徵이다.

#### 1. 修辭的 特徵

玉峯詩의 修辭的 特徵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用事性·繪畫性·象徴性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詩의 修辭에서 用事는 이른바 經史 및 故人古事·名人名句에서 독특한 의미, 교훈적 사실, 혹은 그 詩意와 詩語를 빌려 자신의 情調를 고양시키고자 하는 작시상의 한 수법이다. “수사법으로서의 용사는 典故에 의한 보조관념으로 원관념의 의미 확대, 또는 새로운 관념으로의 유추 등을 포함이다.”<sup>16)</sup>라고 하듯 玉峯詩의 修辭에서 그 用事性を 「始皇」에

16) 金美善, 「常山 通山別業의 題詠詩攷」, 『漢文古典研究』 15, 한국한문고전학

서 살펴보면,

方士求仙去不還	방사는 신선초 구하러 가서 돌아오지 않고
驪山銀海象人間	여산릉의 은하수는 인간세상을 본땀네.
只今誰弔坑中骨	지금 누가 무덤 속의 백골에게 조문하는가
形勝依然百二關	형세의 뛰어난 것은 옛날 백이관 그대로 인데. <sup>17)</sup>

이 作品은 秦始皇을 題材로 하여 쓴 詩이다. 秦始皇은 전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천하를 巡狩하면서 萬里長城을 쌓고 阿房宮을 축조하여 백성을 고달프게 하며, 자신은 好事를 누린 인물이다.

起句에서는 秦始皇이 不老長生을 위해 方士들을 동원하여 不老草를 구하게 했는데, 方士 徐芾을 시켜서 不老草를 캐러 동남동녀 삼백인을 팔려 보냈으나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 承句는 秦始皇이 죽어서도 富貴榮華를 누리기 위해 驪山 陵에 인간세상의 형상을 본떠서 천하를 배치하고 五嶽의 사이를 흐르는 黃河와 長江을 水銀으로 만든 사실을 이야기 하고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후손들에게 길이 이 富貴榮華를 물려주기 위해 始皇帝라고 칭하였다. 하지만 그는 곧 죽었고, 白骨이 되어 땅에 묻히게 되었다. 백성을 塗炭에 빠뜨린 황제를 위해 조문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 百二關처럼 요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秦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었음을 나타내었다.

『孟子』, 「離婁上」에서 “만일 仁政에 뜻하지 않으면 종신토록 근심하고 치욕을 받아 죽고 망함에 이를 것이다.”<sup>18)</sup>라고 하였듯이 玉峯은 이 故事를 통해 인간 욕심의 허망함과 인간 수명이나 왕조의 수명은 不老草나 地勢의 險峻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仁과 仁政에 있는 것임을 나타내었다. 당시 黨派 싸움과 壬亂 직전의 사회적 모순과 혼란 등은 仁政과

회, 2000, p.45.

17) 白光勳, 『玉峯集』 上卷, 「始皇」.

18) 『孟子』, 「離婁上」, “苟不志於仁 終身憂辱 以陷於死亡.”

德治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로 생각하였음을 『孟子』의 故事를 用事하여 詩의 내용을 부각시킨 것이 玉峯詩의 한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玉峯詩의 修辭的 特徵으로 繪畫性을 살펴보면, 자연의 질서와 조화 위에 놓인 樓亭·山水·寺刹 등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갖출 때 무한한 경건성을 지닌다. “이러한 조화와 경건성에서 얻어진 知覺的·感覺的 체험이 내면세계에서의 기억 또는 상상에 의해 재현 혹은 創新될 때 보다 참스런 시각적 이미지로 형상화되므로 자못 효과적인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 같은 시각적 이미지를 繪畫性이라 한다.”<sup>19)</sup>고 하였다. 玉峯詩의 修辭的 특징에서 그 繪畫性을 「贈思峻上人」에서 살펴보면,

智異雙溪勝    지리산 쌍계사 경치 아름답다하고  
 金剛萬瀑奇    금강산 만폭동도 기이하다네.  
 名山身未到    명산에 이 몸은 미쳐 못가고  
 每賦送僧詩    매번 스님 전송하는 시만 짓는구려.<sup>20)</sup>

이 作品은 智異山·金剛山이 아름답다는데 나는 미쳐 가보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그곳으로 떠나는 思峻上人에게 보내는 詩이다.

작자는 몸과 마음이 모두 脫俗한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이 늘 있지만, 현재 玉峯의 몸은 世俗에 머물러 있고, 마음은 世俗을 떠나 思峻上人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智異山의 雙溪寺 溪谷과 金剛山의 萬瀑洞의 웅장하고 빼어난 자연경관을 묘사하고, 轉句와 結句에서는 이렇게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신은 가보지도 못하고 항상 그 곳에 있을 스님에게 보내는 시만 짓고 있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이 시는 雙溪와 萬瀑이 주는 연상을 통한 웅장하면서 맑은 소리를 ‘詩中有畫’의 표현처럼 눈앞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듯 표현하였으며, 스님에 대한 그리움의 내적 정감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며 마치 한 폭의

19) 金美善, 앞의 논문, p.42.

20) 白光勳, 『玉峯集』 上卷, 「贈思峻上人」.

그림을 그리듯 作品을 썼으니, 이러한 繪畫性이 또한 玉峯詩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玉峯詩에서 修辭的 特徵으로 본 象徵性이다. 作品 속에 쓰이는 日常語는 그 자체로는 시적 가치를 갖지 못한다. 그것이 문맥사이에 놓여서 특수한 작용을 하기 위해 다른 언어와 연결되어 특수한 수법으로 사용될 때 비로소 詩語로 轉移되어 특수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수법을 象徵性이라 한다.

시인들은 日常語를 詩語化 하는 작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독자들은 詩를 읽는데 있어 詩語로 轉移되기 이전의 일상적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나서 轉移된 詩語 속의 효과, 즉 象徵性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玉峯詩의 修辭에서 그 象徵性을 「題畫梅」에서 살펴보면,

冷藥開猶少	찬 꽃송이 핀 것이 몇 안 되는데
遊蜂聖識春	나는 벌들은 봄이 온줄 아네.
何當添勁節	어이해야 굳센 절개 마땅히 더해
雪月共精神	눈과 달과 그 정신을 함께 할까. <sup>21)</sup>

이 作品은 매화그림을 보고 자신의 이상적인 삶의 경지를 依託한 詩이다.

起句는 추위에 막 피어난 어린 매화 꽃송이의 모습을 묘사하여 추워 보이는 꽃잎은 피기는 피었으나 오히려 아주 어려서 여린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承句에서는 하지만 그 연약한 어린 매화꽃의 향기는 은은하게 멀리까지 퍼져서 날아다니는 벌들이 향기를 찾아 모여드니 봄이 온 줄 알 것이다.

이것은 君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周敦頤(1017-1073)의 「愛蓮說」에서 연꽃의 향기가 멀리 갈수록 더욱 맑듯<sup>22)</sup>이

21) 白光勳, 『玉峯集』 上卷, 「題畫梅」.

22) 周敦頤, 「愛蓮說」, “予獨愛蓮之出於淤泥而不染 濯清漣而不妖 中通外直 不蔓不枝 香遠益清 亭亭淨植 可遠觀而不可褻玩焉.”

君子の 인격의 맑음이 다른 사람에게 멀리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매화의 굳센 절개와 눈과 달의 깨끗한 품성을 닮고자함을 말하였다. 이처럼 玉峯은 梅·竹과 같은 자연의 景物이 갖는 象徵性을 통하여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이상으로 玉峯詩의 修辭的 特徵을 用事性·繪畫性·象徵性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經史 및 故人古事·名人名句에서 얻힌 故事를 用事하여 詩意와 詩語를 통하여 표현하였고, 자연의 뛰어난 景物을 통해 얻은 시인의 정감을 눈앞에서 그림 보고 있는 듯 묘사하였으며, 觀念化한 사물을 詩를 통하여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나타내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다음은 玉峯詩의 特徵에서 內容의 特徵을 살펴보기로 한다.

## 2. 內容의 特徵

玉峯詩의 內容의 特徵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清新한 內容과 古淡한 內容의 特徵으로 분류해 살펴보기로 한다.

玉峯의 詩에서 樓亭 또는 山寺에서 閑情을 노래한 시, 田園에서 閑居하던 시기의 詩들이 더욱 맑고 清新한 특징을 지닌다. 清新이란 明나라 때 詩人 楊慎은 杜甫의 詩 「春日憶李白」의 作品에 대하여 “清이란 소리가 유려하여 탁하거나 막히지 않는 것이고, 新이란 시어나 뜻이 독창적이어서 진부하지 않다.”<sup>23)</sup>라고 하였는데, 玉峯의 作品에서도 이러한 清新한 내용을 살펴 볼 수 있다. 다음의 「溪堂雨後」에서 살펴보면,

昨夜山中雨	어제 밤 산 중에 비 내렸으니
前溪水政肥	앞 시냇가 물은 불어났겠지.
竹堂幽夢罷	죽당에서 봄꿈 깨어나 보니

23) 楊慎, 『升庵詩話』, “清者 流麗而不濁滯 新者 創見而不陳腐.”

春色滿柴扉 봄빛이 사립문에 가득하네.<sup>24)</sup>

이 作品은 비가 내린 뒤 竹堂에서 봄의 정취를 읊은 詩이다. 계절적 배경은 봄이고 시간적 배경은 아침이며, 시적 분위기는 깨끗하면서도 아늑하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어젯밤 봄비로 竹堂 앞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불어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있다. 특히 물이 불어남을 뜻하는 ‘肥’字는 더욱 봄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轉句와 結句에서는 竹堂에서 밤새 빗소리를 듣고 새벽에 깨어 일어나 사립문에 나가보니 봄빛이 완연해졌음을 묘사하였으며, 특히 이 시는 田園의 한적하고 평온함을 잘 표현하였다.

玉峯詩의 清新함은 험박한 운율과 군색한 압운을 사용함으로써 시의 음악적 측면을 외면하고, 고사의 인용에 치중하여 난삽함에 빠져 진솔한 인간의 정서를 펼치지 못한 宋詩風에 대한 새로운 혁신으로서 감정의 울림을 통한 음악성을 중시하여 창작한 결과이다.

또한 玉峯의 詩에는 送別, 王朝의 興亡盛衰, 가족과의 離別 등의 詩들에서는 古淡한 內容의 特徵이 보인다. 古淡은 격앙된 감정이나 큰소리로 부르짖는 것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연 풍광의 체험,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심후한 감정이나 思想을 조용하며, 素朴한 언어로 표현한다. 다음의 「弘慶寺」에서 살펴보면,

秋草前朝寺 가을 숲 속 전 왕조의 절터에는  
殘碑學士文 한림학사의 비문만이 남아 있고.  
千年有流水 천년을 한결같이 물은 흐르고  
落日見歸雲 석양 속에 흘러가는 구름만 보이네.<sup>25)</sup>

弘慶寺는 顯宗 12년(1201)에 忠淸南道 天安市 成歡邑 大弘리에 세워진 고려시대의 사찰이다. 寺址內에는 顯宗 17년(1206) 學士 崔冲(984-1068)이

24) 白光勳, 『玉峯集』 上卷, 「溪堂雨後」.

25) 白光勳, 『玉峯集』 上卷, 「弘慶寺」.

짓고 名筆 白玄禮(?)가 쓴 국보 제7호 「奉弘慶寺碑碣」이 현존하고 있다. 이 作品은 弘慶寺에 들렀다가 전해오는 이야기를 듣고 가을 풀 우거진 쓸쓸한 절터에 쇠잔한 碑文만이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자연의 有常함과 인간사의 無常함을 대비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起句와 承句에서는 풀이 시들어 가는 모습을 배경으로 허물어진 절과 그 안에 부서진 비석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前 王朝에 세워진 弘慶寺가 허물어져 빈 절터만 남아 있는 無常의 존재라면 殘碑의 碑文은 有限의 존재인 것이다.

이 시의 起句와 承句는 名詞로만 나열된 특이한 점을 보인다.<sup>26)</sup> 또한 몰락한 왕조, 有限과 無限의 대비, 人生의 無常함을 나타내는 면에서는 杜甫의 「春望」과 비슷하다.<sup>27)</sup> 轉句에서는 千年 그 이상을 변함없이 흐르는 流水를 통해 자연의 긴 생명력을 노래하였다. 結句에서는 석양 속에 무심히 흘러가는 구름을 보며 無常함을 느끼고 있다. 이 시는 自然의 無限함 속에서 人間의 有限을 형상화하였다.

玉峯의 詩는 시인의 생생한 감정에 기초하여 소박하며, 평이한 어휘를 구사하여 선비 의식을 가지고 수양된 마음으로 외부의 갈등을 조화 시킴으로써 古淡한 특징을 지닌다.

이상으로 玉峯詩의 內容的 特徵을 清新과 古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樓亭·山寺에서의 閑情, 田園에서의 閑居함을 읊은 作品에서는 인간의 정서를 맑고 독창적인 詩語로 표현하였으며, 送別·王朝의 興亡盛衰를 읊은 作品에서는 日常語를 사용하여 삶 속에서 느끼고 깨달은 감정을 素朴하게 표현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26) 이 시의 앞 두 句의 句法은 唐 司空圖(837-908)의 五言絕句詩 「經廢寶慶寺」의 “黃葉前朝寺 無僧寒殿開.”의 시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27) 杜甫, 「春望」, “國破山河在 城春草木深 感時花濺淚 恨別鳥驚心 烽火連三月 家書抵萬金 白頭搔更短 渾欲不勝簪.”

## IV. 結論

16世紀는 韓國漢詩史上 詩風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으니, 기존의 詩風이 以理爲詩의 主理를 강조하던 宋詩風이었다면 以情爲詩의 主情을 강조하는 唐詩風으로 바뀌는 시점이었다. 인간의 순연한 정감의 표출을 위주로 하는 唐詩風이 文學의 穆陵盛世期에 접어들어 활짝 꽃을 피우면서 學唐을 대표하는 白光勳·崔慶昌·李達과 같은 三唐詩人이 등장하였으니, 이에 본고에서는 三唐詩人 중에 가장 唐詩風에 가까운 作品 世界를 이룬,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를 고찰하였다.

序論에서는 詩風의 轉換背景과 三唐詩人에 대한 정의 및 先行 研究史 檢討를 통하여 본고의 研究 目的 및 研究 方法을 제시하였다.

玉峯의 시세계에서는 作品을 分析하기에 앞서 作品의 전체적인 概觀을 形式的·內容의으로 分類를 하였고, 다음으로 玉峯의 詩世界를 內容에 따라 孤獨의 情恨·無常의 懷古·自然의 景物·交遊의 脫俗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孤獨의 情恨에서는 고향을 떠나면서 느끼는 애환이나 객지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멀리 떨어진 가족을 그리워하거나 특히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述懷하거나, 친구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玉峯은 감정을 억제하고 담담하게 그려내면서 자신의 감정을 고도의 시적 형상화를 통해 승화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無常의 懷古에서는 흐르는 세월 속에서 人生의 富貴榮華와 王朝의 興亡盛衰를 有常과 無常으로 대비하고, 감정을 직설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감정의 절제를 통하여 情을 景에 실어 나타내는 詩的 修辭를 사용했음을 고찰하였다. 自然의 景物에서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仙境에 대한 동경 그리고 현실 삶의 질곡에 대한 거부의 감정을 고상한 속성의 사물에 依託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梅·竹 등 君子로 觀

念化한 사물에서 同一性を 지닌 이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불안정성을 투사시켜 자신의 삶을 재생시켜 詩를 통해 형상화하였음을 고찰하였다. 交遊의 脫俗에서는 여러 山寺를 배경으로 하거나, 여러 승려와 주고받은 詩의 交遊를 통하여 脫俗을 希求하였음을 확인 하였다.

玉峯詩의 特徵에서는 玉峯詩의 內容을 바탕으로 修辭的인 면과 內容的인 면에서 그 特徵을 모색하였다.

修辭的 特徵은 用事性·繪畫性·象徵性으로 분류하여 고찰함에 있어 用事性에서는 經史 및 故人古事·名人名句에서 詩意와 詩語를 통하여 표현하였으며, 繪畫性에서는 자연의 뛰어난 景物을 통해 얻은 시인의 정감을 눈앞에서 그림을 보고 있는 듯 묘사하였으며, 象徵性에서는 觀念化한 사물을 詩를 통하여 단순한 자연물이 아닌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삶을 나타내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內容的 特徵은 清新한 內容과 古淡한 內容으로 분류해 고찰하여 玉峯詩의 特徵을 이룸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詩壇은 詩 創作에 있어서 까다로운 修辭와 난해한 典故를 사용하며, 文學을 과시 혹은 心性修養의 도구로 생각하던 主理的 성향의 宋詩風이 만연하였다. 이러한 문단의 흐름을 聲律의 생동감 및 자연스러움이 넘치는 언어로 표현하는 主情的 성향의 唐詩風으로 전환시킴에 三唐詩人이 등장하였다. 그 중심에 玉峯의 자리가 확연하였음을 玉峯詩의 作品 世界를 고찰하여 漢詩史的 맥락 속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 또한 玉峯詩가 관념적이지 않고 개인의 情緒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生活的 情感을 詩化하여 文學의 獨自性을 확립한 점과, 唐詩의 詩法을 수용하면서도 우리의 풍토에 맞는 개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自主性은 특히 玉峯詩를 韓國 漢詩史的 측면에서 조명해 볼 때, 그 位相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參考 文獻>

- 白光勳, 『玉峯集』, 『한국문집총간』 47, 해동문화사영인, 1985.
- 李 達, 『蓀谷集』, 해동문화사영인, 1985.
- 李晬光, 『芝峰類說』, 아세아문화사영인, 1973.
- 任相元, 『恬軒集』, 『한국문집총간』 148, 한국고전번역원.
- 崔慶昌, 『孤竹遺藁』, 한국문집총간 50, 해동문화사영인, 1985.
- 許 筠, 『許筠全書』, 아세아문화사영인, 1980.
- 黃 玟, 『梅泉集』, 『한국문집총간』 348, 한국고전번역원.
- 
- 권순열, 「옥봉 백광훈 연구」, 『고시가연구』 제23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09.
- 金美善, 「常山 通山別業의 題詠詩攷」, 『漢文古典研究』 15, 한국한문고전학회, 2000.
- 김영국, 「白玉峯의 五言絶句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1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9.
- , 「白玉峯의 七言絶句에 대하여 - 素材 ‘夕陽’을 中心으로」, 『인문과학연구』 제12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0.
- , 「白光勳 詩의 형성과정에 대하여」, 『인문과학연구』 제13집, 조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1.
- , 「玉峯 白光勳의 詩 研究」, 원광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3.
- 김중서, 「玉峯 白光勳 詩 研究」, 연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 「玉峯 白光勳 詩의 風格」, 『한국한시연구』 제3집, 태학사, 1995.
- , 「玉峯 白光勳과 湖南詩壇의 交遊」, 『한국한시연구』 제10호, 태학사, 2002.
- 박종훈, 「玉峯 白光勳의 詩世界 研究 - ‘淸’과 ‘淡’의 特質을 中心으로」, 한양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안병학, 「白光勳 詩 小考」, 『어문학총』 제27집,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7.
- , 「三唐派 詩世界 研究」, 고려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 유현숙, 「玉峯 白光勳論」, 『석당논집』 제19집,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1993.

- 이재복, 「옥봉 백광훈 연구」, 『세종어문연구』 제7집, 세종대학교 세종어문학회, 1994.
- 임채용, 「白光勳의 作品世界」, 『중국어논총』 제6집,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1993.
- 정병홍·임채용, 「三唐詩人 白光勳의 漢詩」, 『순천대학교논문집』 제10집, 순천대학교, 1991.
- 차경화, 「玉峯 白光勳의 交遊詩 研究」, 동아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 최낙원, 「玉峯 白光勳의 漢詩 研究」, 단국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 「玉峯 白光勳의 情懷詩 研究」, 『한문학논집』 제6집, 단국한문학회, 1988.

## Abstract

*The poetic world of Okbong / Chun Boo Sung\**

A poetical style i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Joseon was formed the mainstream of the Song dynasty's poetic style including Su Dongpo. From a year of King Seongjong, especially the Gangseo poetical style dominated momentarily even out of Song dynasty's poetic style. Tang Poetry, which had been intermittently followed from the early foundation of a country with entering the 16th century, was finally in full blossom with entering the period of Mokneungseongse(穆陵盛世). In the meantime, the poetic style faced a turning point in the age of Korea's Hansi(Chinese poetry) history.

There were three tang-style poets in the center of Learning Dang's Poem.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poetic world of Okbong Baek Gwang-hun, who published collection of poems for the first time among three tang-style poets, whose number of works are extraordinarily many, too, who is selected as the best poet in Honam, and who is publicly acknowledged to have greatest refinement of Five-word Poems in a thousand years.

In the introduction of Chapter I, it examined the existing research achievements, and inquired into research objective and research method.

In Okbong's poetic world of Chapter II, it performed the formal classification and the content-based classification in works first through a general survey of works. It examined by segmenting the contents of works in the world of work into what feels homesick in a strange land, what expressed the yearning heart with having a friend far away, the sorrow of solitude, which feels regrettable for separation from a friend, the reminiscence of uncertainty, which recited

---

\* Chungbuk Girl's High School, Teacher / wan97@hanmail.net

sentiments of being felt while associating with historical fact on the historical field, the scenery of the season in nature with the aim of discovering the matter-based ego in the subject amid nature, the uneasiness about life that is felt in government-post life of the chaotic world, and the unworldliness in friendship of being felt while giving and receiving poems with several Buddhist monks.

Next, in the characteristics of Okbong's poetry of ChapterⅢ, it proceeded with approach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Okbong's poetry, by exploring the rhetorical characteristics and the content-based characteristics.

Okbong accepted Tang Poetic Style, but maintained individuality. He completed individual and intuitive poetry that is excellent in creativity, thereby having obtained a name as a poet of Tang poetical style by changing himself in the middle of poem with leading a peaceful living, and allowed even internal conflict to be sublimed artistically. He can be said to be great in the significance of poetic-literary history in a sense that individualized literature by freely poetizing the specific and individual living emotion and by recovering independent world in poem with escaping from the trend of regarding poem as a means of cultivating culture or nature in life of Sadaebu(scholar-officials of Joseon).

**【Key words】** Okbong, Three tang-style poets, Tang Poetic Style, A ruling passion

투고일 : 11월 10일, 심사일 : 11월 30일, 게재확정일 : 12월 7일
--